

# 불복장의식의 전개와 계승의 가치\*

- 목담과 수진의 사자상승을 중심으로 -

이성운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조교수

- 목 차 -

- I. 서언
- II. 불복장의식의 展開
- III. 불복장의식의 繼承
- IV. 결어

## 〈국문초록〉

“불복장작법”은 붓다의 유골(사리)을 봉안한 탑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불화 등을 조성한 다음 그 내부에 육신의 오장(五臟)에 대응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는 신물(信物)을 봉안하는 의식이다.

상(像) 등에 사리 등을 봉안하는 아이디어는 서역 간다라에서 비롯되었다. 3~4세기 이후 중앙아시아에서는 불상의 머리에 사리를 봉안하였고, 중국에서는 오장육부의 형상을 만들어 물목을 넣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이후 한국불교의 8세기 불상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보이거나 13세기 이후 서울 개운사 아미타여래좌상 등에서 확인된다. 불복장의식은 『조상경』에 담긴 경서나 실제 불복장의식이 정형화된 것이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14세기보다 이전의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현존 『조상경』 관련 경전은 16세기 후반 이후의

---

\* 이 논문은 2020.12.18. 한국불교태고종의 정체성 탐구 제2차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글을 수정한 것이다.

자료이다.

기존 연구에 의거해 근·현대 불복장의식의 傳承을 정리하면 화담법린→금해관영→목담성우→도월수진(1948~ )의 嗣承이 확립되는데, 여기에는 금해관영의 불복장의식을 이은 목담성우의 불복장의식 관련 자료와 전통들이 담양 옹화사로 옮겨지고, 도월수진이 그 전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불상조성을 통해 발고여락하려는 불교 목적성취라는 정신이 담겨 있으며, 그것이 사자상승으로 전수되고 계승되어 바르게 실천될 때 불복장의식의 진정한 가치는 드러날 수 있게 된다.

주제어 : 불복장작법, 불복장의식, 내장인식(內藏認識), 조상경(造像經), 목담성우, 금해관영, 도월수진

## I. 서언

한국불교 전통의 불복장의식(佛腹藏儀式)인 “불복장작법”이 2019년 4월 30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불교의 불복장의식이 전통문화로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복장작법”은 붓다의 유골(사리)을 봉안한 탑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불화 등을 조성한 다음 그 내부에 육신의 오장(五臟)에 대응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는 신물(信物)을 봉안하는 의식을 지칭한다. 조성한 불상에 인간의 오장을 상징하는 물목(物目)들을 복장에 봉안(불복장)하여 영원한 인격성을 완성하여 예배의 대상인 성물로 전환시키는 불복장작법의식을 통해 물질로 조성된 불상·불화 등은 종교적 가치(신성성)가 부여되어 신자들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

한국불교의 불복장의식의 역사는 복장물이 발견된 14세기 초반의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복장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법신사리인 『연기경』이나 다라니 등을 불상 내부에 안치한 역사는 훨씬 상회한다. 다만 한국불교에서 언급되는 ‘불복장의식’은 발견된 유물들에 의해 추정되며, 한국불교 불복장의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고 보이는 시기는 14세기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14세기 이래 한국불교의

복장의식은 꾸준히 변화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불교의 복장 의식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조상경』과 같은 복장의례가 편찬 간행된 역사적 사실과 복장의식의 전통 맥이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18세기 이후의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조선 후기 화엄의 중흥조 연담유일(1720~1799) 선사에서 선맥을 잇는 화담법린(1843~1902) → 금해관영(1856~1937) → 묵담성우(1896~1981) → 도월수진(1948~ )의 전승계통이 대표적이다.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승계보가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소략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불복장의식 전승계보는 오히려 전통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불복장의식과 유사한 전통문화의 하나인 범패의 계보가 근대 이후 그 이전의 계보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워 중흥조(中興祖)를 내세우고<sup>1)</sup> 있는 것에 비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한국불교태고종에 전승되고 있는 “불복장작법”이 전통종단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인식 아래 소주제가 선정되었다. 불복장작법이 국가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게 된 것은 전통문화라는 가치의 인정과 동시에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그 원형 또는 전형을 보존하는 데 국가가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 전통문화로서 불복장의식과 전승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어느 누구의 어떤 작법이 전통의식이고, 어느 누가 그 전통을 바르게 계승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한 편의 논문이나 판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전수하고 계승한 이들 간의 사자상승을 기초로 그 방식 등이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또 그것이 특정 종단의 정체성을 담보해주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불복장의식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별개로 ‘불복장’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방면으로 전개되었다. 불복장 의례(儀軌)라고 할 수 있는 『조상경』과 그에 관련된 연구,<sup>2)</sup> 복장의 기원에 관련된 연구,<sup>3)</sup> 우리나라

1) 범패의 중흥조 1세를 李月河(1876~1961), 2세를 벽해정희(1898~1971), 3세를 송암희덕(1915~2000)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심상현, 『불교의식각론』Ⅱ, 한국불교출판부, 2000, 서두 화보.

2) 이송혜, 「불교 조상사적(造像史的) 맥락에서 본 복장(腹藏)」, 『남도문화연구』 제38집, 순천대

라 복장의 역사 및 의궤 복장물 등의 형성과 특징, 전통 계승 등에 대한 자료 및 세미나자료집을<sup>4)</sup> 비롯하여 학위논문<sup>5)</sup>과 학술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 글말은 그간의 연구를 존중하면서 논문 집필의 취지에 걸맞은 소재를 바탕으로 주제를 설정할 것이다. 한국불교 전통불복장작법의 전개와 계승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나가려고 한다.

이 글의 핵심주제인 불복장의식의 주체는 묵담성우와 도월수진 을사로 설정한다. 양사는 용사와 손제의 관계인데, 묵담성우는 한국불교 불복장의식<sup>6)</sup> 손상좌 수월도진에게 올곧이 전해 주교(傳授), 수월도진은 그것을 온전히 전해 받아(傳受), 전통복장의식의 의맥(儀脈)을 계승하였다는 데<sup>7)</sup> 착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전통불복장의식의 성립과 특성 및 전개 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2장), 묵담성우와 도월수진의 불복장의식의 전수와 계승의 특징을(3장) 다뤄보고자 한다. 논의를 위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되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의식보존회의 ‘전통 불복장 조성 절차와<sup>8)</sup> 묵담성우와 도월수진 간에 이뤄진 전통 불복장작법의 계승과 그 활동의 특징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sup>9)</sup> 글말을 통해 전통불복장의식과 거기 담긴 정체성이 무엇인지와 그 가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

---

남도문화연구소, 2019, 9쪽, 주2, 주3 참조.

3) 이승혜, 위의 논문, 2019, 20쪽, 주6 참조.

4) 이국재 편,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조성절차』, 사단법인 한국불교전통불복장의식보존회, 2009;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대한불교 전통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보존회·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경원 편저, 『불복장의 비밀』, 민족사, 2018; 한국불교전통불복장의식보존회, 『묵담 대종사와 그 후계자 도월수진』, 제주: 춘강인쇄사, 2019.

5) 이선용, 「韓國 佛敎腹藏의 構成과 特性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6) 태경, 「묵담대종사와 불복장의식」, 『묵담대종사, 그 선·교·율』, 묵담대종사문도회, 2017, 143-184쪽.

7) 이종수, 「담양 용화사 도월 수진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 『묵담대종사와 그 후계자 도월수진』,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의식 보존회, 2019.

8) 이국재, 앞의 책, 2009.

9) 한국에서는 복장(腹藏)이라 일컫는 데 비해 중국에서는 장장(裝藏), 일본에서는 납입(納入)이라 부른다. ‘복장’이라는 용어는 초기사례인 1274년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의 발원문에서 처음 나타나 다른 존상에서도 지속된 점을 볼 때, 불복장이 성립될 당시부터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II. 불복장의식의 展開

### 1. 불복장의식의 성립과 특성

“불복장작법”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공식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의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의 안내문에는 불복장의 정의와 역사를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sup>10)</sup>

필자는 본고에서 불복장작법을 불복장의식이라고 좀 더 광의의 명칭을 채택하려고 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현재 “작법”이라는 명칭은 작법무(作法舞)에 한정된 협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법이라는 명칭은 “작법귀감”이라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의문의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해서 작법이라는 명칭의 특수화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좀 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불복장의식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그간 “복장이란 불상의 내부에 넣는 신앙적 의미를 갖는 물건을 말한다.”<sup>11)</sup>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설명은 복장물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의 오장육부를 배 안에 감추어 숨기는 것”<sup>12)</sup>이라고 복장을 정의하기도 한다. “불복장작법”이라는 공식명칭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불복장의식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의례의식이라는 분명한 행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복장의식이 아무리 훌륭한 불교의식이라고 해도 그것은 완결된 의식이라고 할 수 없다. 불복장의식의 마지막 단계인 점안의식(點眼儀式)을 거친 연후에야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복장작법이 점안의식의 상위의식이든 종속의식이든 복장의식만 작법이라고 하고, 점안은 의식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sup>13)</sup>

10)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검색일: 2020.12.06. 15:03

11) 최인선, 「조상경과 현대의 불복장-담양 용화사의 수진스님 불복장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제31호, 한국문화사학회, 2009, 268쪽.

12) 경원 편저, 앞의 책, 53쪽.

13) 도월수진이 주도하는 한국불교전통불복장의식보존회에는 ‘전통불복장의식’이라고 점안의식을 불복장에 포함하고 있지만 대한불교전통불복장및점안의식보존회에는 ‘불복장 및 점안의식’이라고 하여 대칭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점은 무형문화재 지정 때에도 논의가 되었던

불복장의식이 시작된 시기를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대체로 14세기에는 성립되었다고 교계나 학계에서 인정한다. 불복장의식의 선행적인 모습은 불상이 조성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상(像)이나 그림 안에 사리 등을 봉안하는 아이디어는 불상이 유래된 서역 간다라에서 비롯되었고, 서역을 거쳐 중국에 전해졌다. 간다라 불상에는 정계(頂髻)에 흠을 판 흔적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사리나 사리장치 또는 그 대체물인 보주(寶珠)를 봉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4)</sup> 기원 후 3~4세기경 중앙아시아에서 조성된 불상의 정계에도 이러한 사리봉안 장치가 발견되었다. 이후 점차 물상의 몸체 내부에 사리를 비롯한 물품을 봉안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4~6세기경에 조성된 아프가니스탄 바미얀(Bāmiyān) 석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석불에서 사리·직물·경전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탑 안에 사리를 봉안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모티브에서 비롯해 불상에도 가장 신성한 곳인 머리 위에 사리를 봉안하게 되었고, 사리를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탑과 불상에 경전을 봉안하게 된 흐름을 살펴보면, 불복장이 필요하다는 개념은 불상이 조성되던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당나라 때에는 불상 내부에 사리가 아닌 여러 공양물이 봉안되었고, 9세기에 이르면 오장(五臟)의 모형을 만들어 납입한 복장물과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중국에는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사상(事象)을 통괄하는 오행사상에 입각하여 소우주관인 인체를 존재로 생각하여 인간의 장기인 오장과 그 속에 있다고 상정하는 신(神, 정신)에 관계하는 신체설이나,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내장인식(內臟認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의 교의라기보다는 중국의 전통의학과 도교의 신체관이라고<sup>15)</sup> 할 수 있다. 비단 등으로 오장육부의 형상을 만들고, 간장·심

---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교무형문화재 정책의 한 지침이 될 수 있으므로 필자는 불복장작법은 불복장의식으로 하여 점안의식과 분리해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14) 이주형, 「간다라 불상과 舍利 奉安」, 『중앙아시아연구』, 중앙아시아학회, 2004, 129-159쪽.

15) 태경, 「목답 대중사와 불복장의식」, 146쪽.

장·비장·폐장·신장 등 각 장기 안에 생명력을 상징하는 사리·옥·향 등의 물품을 넣는 것이다. 이것은 “불복장 신앙은 불상 안에 사리나 경전 등 불법을 상징하는 물품을 넣으면 영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생신사상(生身思想)과 중국 전통 의학과 도교의 신체관, 신선사상이 융화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불상이 신성과 위엄 있는 영험한 부처님으로 된다는 중국 특유의 믿음인 상신신앙(像身信仰)에 바탕을 두고 있다”<sup>16)</sup>고 할 수 있다. 985년 북송 개원사(開元寺)에서 조성돼 일본 청량사(淸涼寺)로 옮겨온 석가여래입상 복장물에서 비단으로 만든 장기모형, 경전과 판화, 보리염주, 사라수 잎, 불교 도상이 새겨진 동경, 금동방울, 당(幢)과 수백 점의 직물조각 등이 발견되었으며,<sup>17)</sup> 송대 이후에 이르러 이러한 장기모형 납입품의 주요 요소로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11세기에 접어들어 중국 전역에 불복장 행위가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장기모형 대신 아미타불 48대원이나 공양하는 이들의 발원문에 증점을 두는 움직임 등이 나타났다.<sup>18)</sup>

불복장에 준하는 국내기록은 통일신라, 766년(혜공왕 2)에 조성된 석남사(石南寺) 비로자나불좌상 대좌에서 곱돌로 만든 사리항아리 납석 제호(蠟石製壺)가 발견되었는데, 표면에 새겨놓은 기록을 통해 불상을 조성하며 그 안에 모신 것이 현존 최고(最古)의 복장유물임이 밝혀졌다.<sup>19)</sup> 또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편찬한 『동국이상국집』에 고려 중기 복장물목의 종류와 납입정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슬프도다! 저 무지 막심한 오랑캐들의 횡행함과 포악함이 전각과 불상에까지 미쳐 파괴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의 성상 역시 그러하여 비록 형체는 겨우 보존되었으나 복중(腹中)의 진장(珍藏)은 모조리

16) 경원 편저, 앞의 책, 52쪽.

17) 奥建夫, 『日本美術: 淸涼寺釋迦如來立像』 513, 至文堂, 2009; 이용윤, 「불상봉안의식의 精髓, 腹藏」,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문화부·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16~17쪽에서 재인용.

18) 이승혜, 「중국 불상의 성물 봉안: 쟁점과 과제」,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대한불교 전통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보존회·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100~105쪽.

19) 박경원·정원경, 「永泰二年銘蠟石製壺」, 『연보』 6, 부산시립박물관, 1983.

드러내어 텅 비고 말았다. … 이에 예전의 소장물목에 근거하여 2개의 심원경(心圓鏡)과 오향(五香)·오약(五藥)·색사(色絲)·비단주머니(錦囊) 등 여러 물건을 갖추어 본래대로 복구하였다.<sup>20)</sup>

이 글은 몽고 침입으로 낙산사(洛山寺) 관음보살상이 훼손되고 복장물목을 잃게 되자, 13세기초 이규보 등이 불상을 보수하고 이전의 복장물목에 따라 다시 납입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 밖에도 1314년 국청사 석가여래상에 오색사리와 불복장물을 안치했는데 큰 영험이 있었다는 민지(閔漬)의 기록, 석왕사 비로자나 좌우보처인 문수보현 목조상에 복장한 권근(權近)의 발원문 등이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 불상에서 실제 복장물이 발견된 사례는 1274년 이전에 조성된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해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1301년),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복장물(1302년), 일본 관음사 소장 금동보살좌상(1330년),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1346년),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1346년),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1362년),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388년 중수),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389년 개금), 통영 안정사 금동여래좌상(고려후기), 합천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고려후기) 등이 있다.

1346년에 조성된 문수사 목조아미타불상의 경우<sup>21)</sup> 목에는 후령(喉鈴), 가슴에는 목합(木盒), 복부에는 발원문과 각종 문서류, 맨 아래에는 생초류(生絛類)를 비롯해 주변의 빈 공간을 다라니 뭉치로 메웠다. 목합에는 오보병, 사리통, 수정(심주)이 들어있는데, 오보병은 천으로 만들어 오곡·오향·오보·오약 등을 싸놓았으며 사리통에는 사리를 상징하는 구슬을 넣었다. 목합 외부에는 팔엽의 연잎을, 상부에는 연자주서를 그렸다. 고려후기 조성된 안정사 금동여래좌상의 경우 가슴 맨 위에 비단으로 짠 후령이 있고, 다라니로 짠 목합(가슴부분), 천(가슴과

20) 『東國李相國集』 卷25, 雜著 「洛山觀音腹藏修補文并頌」.

21) 정은우, 「우리나라 복장물의 형성과 특징」,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대한불교 전통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보존회·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120~122쪽; 강인구, 「瑞山 文殊寺 金銅如來坐像腹藏遺物」, 『미술자료』 18, 국립중앙박물관, 1975, 1~18쪽.

배), 발원문, 다라니문치 등이 차례로 안치되어 있었다. 목합에는 천으로 만든 황색·청색·주황색·백색·남색의 오보병과, 구슬(심주)·벽옥통(사리함)이 들어있고, 뚜껑을 열었을 때 맨 위에 중방원경(中方圓鏡)과 색사가 놓여 있었다. 목합 내벽에는 색깔과 모양으로 다섯 방위를 나타낸 오륜종자(五輪種子)를 붙이고, 외벽에는 팔엽의 연잎을 그리고 사방주(四方呪)를 범자로 적었다.<sup>22)</sup> 비교적 후기에 발견된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불복장물의 일반적인 구성을 정리해보자. 대개 목 쪽에 동제방울인 후령이 오고, 가슴 부분에 나무나 은으로 만든 합(盒)을 안치하며, 배와 다리 부분에 발원문·시주질을 비롯한 각종 경전과, 다라니·직물류 등으로 이루어졌다. 근래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상에서 복장물이 발견되어 9세기에 조성된 목불임이 밝혀졌는데, 당시 물목은 고려후기와 1490년에 납입한 것이지만 목서의 제작연대와 불상 내부의 빈 공간으로 보아 조성 당시에 다른 복장물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sup>23)</sup> 따라서 적어도 고려 중·후기에는 불복장 전통과 납입물목이 정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중국과 일본에서는 불상을 조성했을 때 간략한 물목 납입은 있으나 정립된 의식으로 전승되고 있지 않으며, 점안·개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으로 정립된 불복장 작법의 전승맥락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티베트에서도 대표적인 밀교의식의 하나로 불복장을 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의식과 납입물목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장육부라는 직접적인 요소로서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후령과 후령통의 상징성으로 이러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고려시대에는 생명력의 상징을 목(喉)에 납입한 방울(鈴)로 드러냈다면, 조선시대에는 법력으로 함장된 물목의 기운이 후령통의 관(喉)을 통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장치로써 이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모두 한국적 관념과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

22) 이용윤, 「불상봉안의식의 精髓, 腹藏」, 18-22쪽.

23) 이용윤, 「불상봉안의식의 精髓, 腹藏」, 18쪽.

겠다. 불복장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뤄졌다고 보이나, 현재 발견된 유물을 비교해보면 삼국 가운데 한국만이 수량이나 형식의 면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2. 불복장의식의 성립과 변천

불복장의식의 관련 의궤는 조선중기 이후 간행되기 시작하는 『조상경(造像經)』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동북아 삼국에서 이러한 의례가 설행된 것은 관련 저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서는 『조상경』에 직접 수록된 저본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지구다(阿地瞿多)가 653년 『금강대도량경(金剛大道場經)』에서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한역한 『다라니집경(多羅尼集經)』은 불복장의 기원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석가불정상(釋迦佛頂像)을 조성하여 칠보화좌(七寶華座)에 앉히고 단을 만들어 그 위에 안치하는데, 단의 사방으로 번기, 꽃, 방울, 노리개, 거울, 8향과 5곡, 옹황을 섞어 넣은 오보병, 백개자, 석자 등으로 장엄하여 다라니 공양과 화공양·향공양을 올리면서 다라니의식을 행한다”<sup>24)</sup>고 하였다. 아울러 12품에는 도량결계(道場結界) 의식을 행할 때 칠보와 오곡을 비단에 싸서 오색 줄로 묶는 방식 등이 현재 불복장 작법과 유사<sup>25)</sup>하여 『다라니집경』의 영향을 짐작케 한다.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다라니집경』이 언제 국내에 유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시대에 명호(明曉)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가져온 『불공견삭다라니경(不空罽索多羅尼經)』에는 불상의 화상법(畫像法)과 수인(手印)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이 경전 의궤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또한 『조상경』에서 볼 수 있는 물목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

24) 『多羅尼集經』 卷1: 문명대, 「불복장의 기원과 한국 불복장의 전개」, 『열반, 궁극의 행복』, 불교중앙박물관, 2014, 201쪽에서 재인용.

25) 정은우, 「우리나라 복장물의 형성과 특징」, 134-135쪽.

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불상을 조성하고 나서 불단의 사방을 장엄했던 요소들이 점차 불상 내부로 복장되어 갔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라니 계통의 경전을 통해 유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오보병은 의식도량의 방위를 나타내던 것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식에 쓰던 물목이 모두 병 속에 들어간 것<sup>26)</sup>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조상경』에는 네 종류의 경전이 인용되어 있는데,<sup>27)</sup> 『대장일람집』을 비롯하여 복장물목을 다룬 『묘길상대교왕경(妙吉祥大教王經)』과 납입의식을 다룬 『삼실지단석(三悉地壇釋)』, 『불공견삭신변진언경(不空罽索神變眞言經)』이 그것이다. 이 의례는 고려시대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묘길상대교왕경』은 중인도 마갈타국의 자현(慈賢)이 1062년 이후에 역출(譯出)한 경전으로, 자현은 거란에 들어와 국사가 된 인물이다. 이 경전이 역출될 당시 거란대장경을 완성했을 때 이듬해 즉시 고려에 보냈다는 기록 등이 말해주듯이 중국의 새로운 문화가 매우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다. 『삼실지단석』은 선무외(善無畏, 637~735)의 번역으로 되어 있으나, 혜과(惠果, 745~805) 이후에 성립 가능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 후에 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경전은 혜과가 활동한 이후인 9~10세기경 고려에 전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275년(충렬왕 원년)에 왕실의 발원으로 은자(銀字) 사경하여 고려시대 최고의 사경으로 꼽히는 『불공견삭신변진언경(不空罽索神變眞言經)』에도 화상법과 물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 강종(1212년 즉위), 충렬왕(1274년 즉위), 원종(1259년 즉위), 충선왕(1308년 즉위)의 즉위일에 보병에 법수(法水)를 넣어 왕의 머리에 뿌리는 밀교의식으로 관정도량(灌頂道場)을 개설하였고, 충숙왕 14년(1328)에 밀교대장경 130권을 금서(金書)로 간행하였다.<sup>28)</sup> 이처럼 당시 왕실 불교에 대한 경향과 밀교경전들이 대량으로 들어온 사례 등은 밀교계통의 의식인 불복장의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실제 불복장의식이 정형화된 것이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14세기

26) 태경 譯著, 『조상경』, 운주사, 2006, 97쪽.

27) 태경 譯著, 『조상경』, 42~58쪽.

28) 불교문화연구원, 『韓國佛敎思想史概論』, 동국대학교출판부, 1963, 2쪽.

보다 이를 수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발견된 불복장물은 주로 14세기의 것이나, 이러한 경전의 유통을 감안해 보면 개운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1274년)에 이미 불복장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면 늦어도 13세기경에는 일정한 물목을 갖춘 유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악 지탁이 유점사에서 1824년 편찬한 『조상경』 이전에 간행된 『조상경』은 대략 다음과 같다. 1575년 전남 담양 용천사판의 『대장일람경』, 1697년 전남 고흥 팔영산의 능가사판 『관상의괘』, 1720년 평안도 용강 화장사판의 『화엄조상』, 1746년 경북 상주 김룡사판과 1824년 금강산 유점사 간본 5종과<sup>29)</sup> 1864년 필사된 해인사 『성상소화복장의』 및 1869년 필사된 용화사 소장 복장경<sup>30)</sup> 등 수본이 존재하고 있다.

남권희(2014)는 『조상경』 판본의 계통도를 작도하고 있으며,<sup>31)</sup> 태경(2017)은 이를 <그림 1>로 수정 보완하였다.<sup>32)</sup> 이와 같은 결과는 사실 묵담대종사문도회의 『묵담대종사, 그의 선·교·율』을 통해서 가능해졌는데, 전통의 불복장의식이 바르게 전승하도록 하려는 이들의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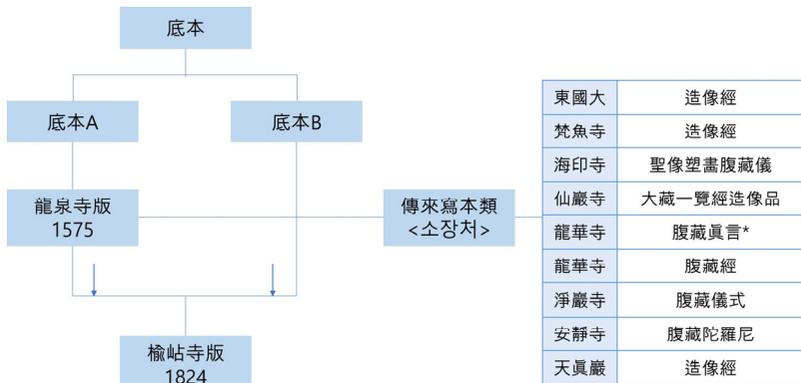
<그림 1>에서 확인되는 본을 비롯해 용화사에는 『복장진언』, 『점안작법』, 『삼증사점필법』 등의 불복장의식과 관련된 필사본들이 존재한다. 불복장의식 의궤인 『조상경』은 중국 송대의 육조삼장 선무외의 금강정경에 수록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중국에는 남아 있지 않다. ‘조상경’이라는 정식 명칭이 책의 서문이나 판심 등에 처음 사용된 예는 1824년 유점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점사 판은 이전의 판본과 달리 전면적인 개판이 이뤄진 간행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관용적으로 ‘조상경’이라고 쓰이거나 ‘대장일람경’이라 불리며 유통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33)</sup> 한편 『조상경』은 현존 자료

29) 남권희, 「조상경 판본의 서지적 연구」,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대한불교 전통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보존회·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146쪽.

30) 태경, 「묵담 대종사와 불복장의식」, 155-160쪽.

31) 남권희, 「조상경 판본의 서지적 연구」, 147쪽.

32) 태경, 「묵담 대종사와 불복장의식」, 156쪽.



\*'점안진언'을 '복장진언'으로 수정, '해인사조상경은 본래 서명인 성상소화복장으로 수정 [원저자주]

〈그림 1〉 태경의 『조상경』 계통 수정도

로 볼 때 『대장일람집경』 조상품에서는 조상의 인연을, 『묘길상대교왕경』(묘길상평등비밀최상관문대교왕경)에서 물목을, 『삼실지단석』(불정존승심파지옥전업장출삼계비밀삼신불과삼종실지진언의괘)에서 실지(신타, 성취)를, 또 시호(施護)의 『대명관상의괘』에서 팔엽대홍련을 취해서 불복장의식의괘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시기에 번역된 경전을 편집하여 불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복장의식의 체계를 갖추었다. 불상조성에서 시작해 마지막 점안의식까지를 포함해 완전한 하나의 의식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담양 용화사 소장 『복장경』은 1869년에 필사되었으며, 해인사 『성상소화복장의』는 1864년에 필사되었다고 추정된다. 둘 다 『대장일람집』 조상품은 필사하지 않고 복장·점안·청불 공양의식을 갖추고 있다. 또 유점사판 『조상경』 마지막 부분에 증명 삼화상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의미가 있다. 유점사판 『조상경』은 화악 지탁에 의해 그 모습이 일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4)</sup> 의례의 행법에서 운용하는 교리적인 주

33) 남권희, 『조상경』, 대한불교 전통 불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 2014, 부록 3쪽.

34) 태경, 「목담 대중사와 불복장의식」, 160쪽.

석을 경전 구조에 포함시키면서 하나의 수행체계를 갖추었다. 화엄교학의 신해행증은 오해인(五海印)을 통해서 신해수증의 관법수행으로 이해하고, 또한 삼십칠존을 끌어와 관법 및 수행결과를 유출시킨다.<sup>35)</sup> 이와 같이 『조상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통의 불복장의식은 단순히 불상에 물목을 삽입하는 의식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불교교학에 의거한 수행체계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14세기라고 하면 국내에서 중국불교 수륙의문이 한국식으로 편찬되는 시기이고, 밀교행법이 국내에 유행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의례에 삼밀가지가 활용되며 수인 등이 널리 활용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난 이후에는 ‘조상경’계통의 불복장 관련 의례는 현존하고 있으며, 분명한 전승사례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불복장의식도 전승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범패전승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물과 전통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재했다고 강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Ⅲ. 불복장의식의 계승

#### 1. 불복장의식의 사자상승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4세기 이후 현재와 같은 불복장의식이 성립되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불복장의식이 명확하게 사자상승의 과정으로 전승된 기록은 많지 않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나 현재 실행되는 불복장의식의 전승계보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스승과 제자가 그 가르침을 사자상승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전승계통의 맥으로는 선맥, 학맥, 율맥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역사가 길지 못하다. 가령 전계전통을 보면, 묵담성우 이전 율맥의 중흥조로 불리는 대은낭오(大隱朗叟, 1780~1841)의 서상수계로 시작된 전통은 묵담의 전법

---

35) 태경, 「묵담 대종사와 불복장의식」, 153쪽.

사 만암종헌(曼庵宗憲, 1876~1956)이 해동 율맥의 제9대 율사가 되고 있는 것이<sup>36)</sup> 증명한다. 그렇듯이 불복장의식의 전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중흥조라고 지칭될 수 있는 조건으로 첫째로 국내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상체계를 나타내고, 둘째 문도가 변창하고 계승의 단절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계승을 입증하는 기존의 저술이 남아 있어야 한다.<sup>37)</sup>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면 19세기 초반 서상수계한 대은낭오 율사는 한국율맥의 중흥조라고 할 수 있다. 해동 율맥의 중흥과 더불어 의례의 맥 또한 부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0대 율사로 그 맥을 전승한 묵담성우는 혜은법홍(慧隱法弘, 1915~2003)을 거쳐 손상좌 도월수진(道月守眞, 1948~ )에게 그 맥을 이어지게 함과 동시에 그의 불복장으로 대표되는 의맥(儀脈)도 이어지게 하였다.

법맥·선맥·율맥·의맥 등이 면면히 이어지지만 사자상승(師資相承)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불교 불복장의식의 사자상승은 어떻게. 불교계 내에서 불복장의식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불복장의 성물을 문화재로서 연구한 논문들은 발표되어 왔지만 불복장의식에 주목한 것은 1991년 온양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1302년 아마타불복장물의 조사연구』에 수록된 배영동의 「불복장의식의 구성과 의미」라는 논문이 처음이라고 보인다.<sup>38)</sup> 이후 관련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이 발표되고, 불복장의식의 실행 현황에 대한 조사 등이 이뤄진다. 도월수진은 1996~2014년간 무려 4차례에 걸쳐 불복장의식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하였지만<sup>39)</sup> 여론을 환기하는 데는 기여하였지만 소기의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2018년 지정조사를 거쳐 2019년에 불복장의식이 무형문화재 제139로 지정되었다. 조계총종무원 문화부와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2012년 9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불복장의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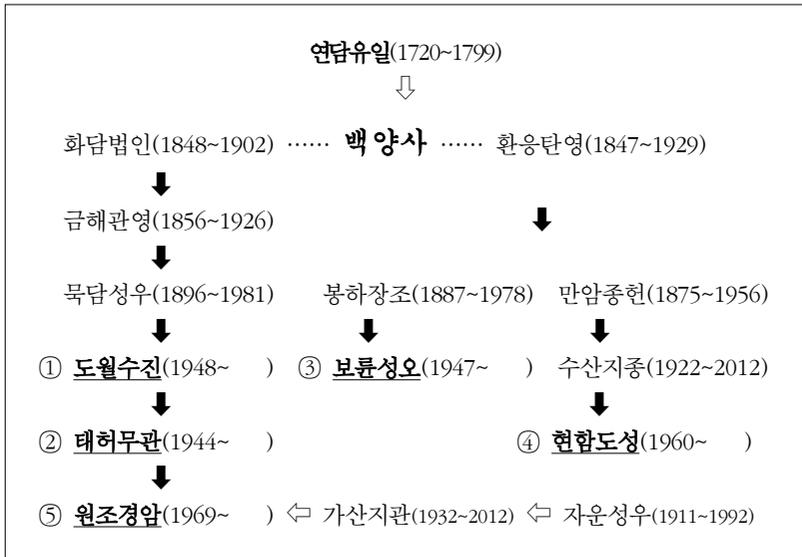
36) 退耕, 「朝鮮의 律宗—朝鮮에서 自立한 宗派의 其三—」, 서종범 편, 『曹溪宗史資料集』, 1989, 615쪽; 가산지관, 『한국불교계율전통』, 가산불교문화원, 2005, 257·444쪽.

37) 허홍식, 「中世 曹溪宗의 起源과 法統」, 『조계종사연구 논문집』, 중도, 2013, 315쪽.

38) 이종수, 「담양 용화사의 도월 수진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 129~130쪽.

39) 이종수, 「담양 용화사의 도월 수진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 132~133쪽.

설행 현황이 조사되고 그 결과가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로 정리되었다.<sup>40)</sup> 이 보고서는 태고종과 조계종의 불복장의식 전수자 다섯 분 스님을 조사한 것으로 각 전수자들의 인적 사항과 의식 활동 및 전승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전수자 다섯 분은 도월 수진을 비롯하여 태허 무관(太虛無觀)·보륜성오(普輪性寤)·현함도성(現含道成)·원조경암(圓照鏡岩)이다. 다섯 전수자가 밝힌 사자상승의 특징은 백양사의 묵담성우가 중심이 되고 해인사에 주석했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전승계보는 <그림 2>로 정리된다.<sup>41)</sup> 이에 의하면 불복장의식은 백양사에서 그 전통이 전승되어 왔고 그 전승의 중심에 묵담성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42)</sup>



<그림 2>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의 전승계보도

40)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문화부 외,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 조계종출판사, 2012.

41)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문화부 외,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 80-101쪽; 태경, 「묵담 대종사와 불복장의식」, 171쪽.

42) 이종수, 「담양 용화사의 도월 수진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 115-116쪽.

묵담성우→도월수진의 사자상승이 분명하지만 한국불교의 불복장의식이 백양사에서만 전승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먼저 한국불교의 여타 전승은 어떠한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12년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불복장의식 실행현황’ 조사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불복장의식의 전수자들은 없을까. 2018년 『불복장의 비밀』을 편저 경원(庚圓, 1960~ ) 니사(尼師)는 이십대 초반부터 동학사승가대학 호경기환(湖鏡基煥, 1904~1987)과 청봉혜묵(靑蜂惠默, 1920~2002)으로부터 복장의식을 습득하고, 공림사·법주사·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 등 15곳 이상의 사찰과 학교 등지의 불복장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sup>43)</sup> 또 다른 사례로는 필자가 참여한 2016년 공적 단체의 불복장의식 실행 전수자 조사 때 만난 대구 보현암의 선진(정명자, 1959~ ) 니사가 있었다. 니사는 운문사에서 출가하여 2002년 법철 스님에게서 복장의식에 관한 책자와 의식을 전수받았다고 하였다. 법철은 통도사로 출가하였고 이후 태고종을 거쳐 남파종이라는 종단의 초대종정을 지내고 2006년에 입적하였다고 한다. 선진 니사는 현재까지 20년 이상 활동해오고 있으며, 대구 동화사, 청도 운문사, 영천 은해사, 장흥 보림사 등의 불복장의식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2012)의 전승계보도에 대해 『묵담 대종사, 그 선교율』(2017)의 속표지 뒷면에는 정오표를 붙여, 전승계보도가 오류라고 하며 <그림 3>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는 잘못 되었다고 정오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월수진의 불복장을 잇고 있다고 밝혀 놓은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환응탄영과 봉하장조의 사자상승을 부정함과 동시에 만암종현과 수산지종의 상승마저도 부정하며, 수산지종이 만암종현을 이은 것이 아니라 봉하장조의 방계라고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2012)의 사자상승 전언을 『묵담 대종사, 그 선·교·율』(2017)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해

43) 경원 편저, 『불복장의 비밀』, 502쪽. 2020.12.10. 저녁 편자와 전화통화로 인터뷰하였음. 불복장의식은 밀법으로 전승되는 것이므로 무형문화재 지정과 같은 공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3〉 불복장의식의 전승계보도

당 전수자들이 현재 같은 시대에 함께 보존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사자상승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4)</sup>

불복장의식뿐만 아니라 의맥의 사자상승은 스승을 가까이서 시봉하며 그 방법과 사상을 옮기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수자들의 전승의 특징을 밝혀놓고 있는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2012)에는 스스로 그 답을 전해주고 있다고 보인다. 전승자별 특징을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5)</sup>

44) 2021.8.10. 도월수진은 전화통화에서 배울 수는 있었겠지만 전승은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다.

4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외,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 78쪽.

〈표 1〉 주요 전승자별 사자상승의 특징

전승자명	새로 제작한 도구	복장물 제작법
무관스님	의식용 팔엽과 금강저를 나무로 제작	목담스님 제작방식에 해인사 비로자 나부처님 복장을 바탕으로 제작
성우스님	의식용 팔엽과 금강저를 단단한 종이로 제작	손으로 직접 제작
수진스님	없음	목담스님 제작 방식 그대로
도성스님	의식용 팔엽과 금강저를 단단한 종이로 제작	철인가 실크스크린
경암스님	의식용 팔엽과 금강저를 은으로 제작하는 등 모든 도구를 새로 제작	해인사 비로자나부처님 복장을 바탕 으로 제작

전승자별 특징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다. 사자상승의 전승기법을 그대로 따른다고 답한 이는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도월수진이 유일하다.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전용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시대가 변하면 문물도 변해지는 것이므로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스승의 전승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야 말로 순수한 전통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兹음에서 목담성우와 도월수진의 불복장의식과 그 의맥 전승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목담성우(1896~1981)는 11세에 증용사 금해관영(錦海瓊英, 1856~1937)의 권유로 백양사에 입산한다. 금해관영은 불복장의식의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복장경』·『복장진언』·『점안의식』 등의 필사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 하한선은 1919년으로 판단된다.<sup>46)</sup> 『목담대종사문집』(1999)에서 밝히는 연담유일(1720~1799)의 계보는 호암체정 → 연담유일 → 양옥규호 → 침송성순 → 덕운천훈 → 화담법린 → 금해관영 → 봉성종환 → 천경순오 → 목담성우로 이어진다.<sup>47)</sup> 목담성우는 출가 후 백양사 내장사 등지에서 사교와 대교를 익히고, 1921년에는 백양사 청류암에서 선문염송을 수학하였으며,<sup>48)</sup> 당시 청류암(현재 관음암)에는 목담성우의 출가를 권한 금해관영이 주석하고 있었다. 목담성우는 1970년 태고종 창종 전까지 백양사 관음암(구 청류암)과 관련을

46) 태경, 「목담 대종사와 불복장의식」, 171쪽.

47) 목담대종사문집간행위원회, 『목담대종사문집』, 민족사, 1999, 589쪽.

48) 목담대종사문집간행위원회, 『목담대종사문집』, 569쪽.

맺게 되며, 1956년 백양사 포교당으로 담양 용화사를 창건한다. 이로 인해 금해관영의 불복장의식을 잇게 된 묵담성우의 불복장의식 관련 자료와 전통들이 담양 용화사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묵담성우의 불복장의식의 거점은 자연스럽게 용화사가 되었다. 2017년 6월~8월 중 3차례에 걸친 묵담유물관 소장 문헌자료조사에 의하면 불복장의식과 관련되는 약 10여 종이 발견되었다. 『묵담대종사문집』 등 12점의 자료(판본 유점사본 『造像經』, 조상경 필사본 『腹藏經』, 금해관영의 필사본인 『腹藏眞言』·『點眼作法』·『三證師點筆法』, 묵담성우의 잡기장 『金水寺佛像腹藏所入記』, 『佛像造成內譯』, 『白羊寺四天王新造像時法門抄』, 『佛像造成功德』, 『佛像奉安式法語』와 묵담문도회에서 간행한 『默潭大宗師文集』, 『모든 것은 흘러간다』)<sup>49)</sup>이다.

이상은 담양 용화사의 묵담성우와 도월수진의 사자상승을 설명해주고 있다. 묵담성우는 제9대율사로서 불사작법증명법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불복장의식으로만 묵담성우를 한정할 수는 없다. 오랜 기간 묵담성우를 가까이서 지켜본 서용(전 조계종 종정)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조년에 출가하여 선과 율의 공부에 일생의 정력을 기울였을 뿐더러 불사의례문에는 가히 독보적인 일인자라고 할 만큼 귀감이 되는, 즉 이사(理事)와 내외(內外)가 겸전(兼全)한 당대의 선지식이다.”고 하며 “과연 우리 불문 중에 이러한 선지식이 몇 분이나 될까.”<sup>50)</sup> 이사와 내외가 겸전한 묵담성우의 대표적인 불복장 이력은 1938년 금산사 미륵대불, 1943년 법주사 불상의 복장물을 조성하는 등 25회에 걸쳐 복장물을 조성하고 그 의식을 행하였다.<sup>51)</sup> 1938년이면 증용사 금해관영이 열반한 이듬해이다. 묵담성우는 금해관영 열반 이후 금해관영의 불복장의식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묵담성우가 증용사 금해관영의 권유로 출가하여 율맥과 의맥을 이었듯이 도월수진은 법용사 묵담성우의 권유로 출가하여 그것을 잇는다. 11세에 조실부모하고 불문과 인연이 된 묵담성우처럼 도월수진은 조실부모하고 조부마

49) 태경, 「묵담 대종사와 불복장의식」, 181쪽.

50) 묵담대종사문집간행위원회, 『묵담대종사문집』, 5-6쪽.

51) 최인선, 「조상경과 현대의 불복장-담양 용화사의 수진스님 불복장을 중심으로」, 268-269쪽.

저 세상을 떠난 17세에 담양 용화사에서 득도하여 묵담성우의 손상좌가 되었고, 훗날 율맥과 의맥을 이었다. 도월수진은 묵담성우 대종사의 손제자로서 그 사상의 법맥과 계맥의 율맥과 의식의 의맥을 전수받았다. 묵담대종사는 연담유일(1720~1799)의 법을 이었고, 율맥으로는 해동 율맥 제9세이며, 의맥으로는 불복장 점안작법의 중흥조가 되었다.<sup>52)</sup> 율사였던 묵담성우는 평생 청정비구의 삶을 살았듯이 도월수진 역시 청정비구로서 묵담 대종사의 사상·계율·의식의 맥을 잇고 있다.<sup>53)</sup> 묵담성우의 법맥은 덕봉지광→도월수진으로 이어졌다면, 율맥은 혜은법흥→도월수진으로 이어진다. 묵담성우는 금해관영의 의맥을 계승하고 있는데, 묵담대종사에게 금해관영은 법맥으로는 3대조이고, 율맥으로는 2대조가 되며, 의맥으로는 직접 사사받은 스승이 된다.<sup>54)</sup> 결국 법맥·율맥·의맥에 대한 묵담성우와 도월수진의 관계는 법맥과 율맥은 용사와 손상좌이고 의맥은 직계 스승이 된다. 근현대 의맥을 정리하면 금해관영의 은법사 화담법린(1843~1902)→금해관영→묵담성우→도월수진의 사승이 확립된다.

14세기 이래 한국불교의 불복장의식이 확립되어 전승되었지만 그 사자상승의 계통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16세기 후반 이래 불복장의식의 의궤 『조상경』이 간행되었고, 19세기 초반 화악 지탁에 의해 유점사판 『조상경』이 간행 유포되었다. 그 이후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불복장의식의 전통이 백양사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심에 근현대 한국불교의 대선지식으로 추앙받는 묵담성우 대종사가 있다. 그 묵담성우 대종사의 율맥과 의맥의 담양 용화사의 도월수진에 의해 율공이 전승되고 있다. 도월수진의 불복장의식의 전승은 1982년 시작되어 2020년 12월 8일 부산 해동 용궁사까지 26회 이상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sup>55)</sup> 금해관영이 열반한 이듬해부터 묵담성우의 불복장이 시작되었듯이 도월수진도 묵담성우 대종사가 열반한 이듬

52) 묵담대종사문도회, 『묵담 대종사, 그 선·교·율』, 제주: 춘강인쇄사, 2017.

53) 이종수, 「담양 용화사의 도월 수진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 118쪽.

54) 이종수, 「담양 용화사의 도월 수진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 120쪽.

55) 이종수, 「담양 용화사의 도월 수진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 128-129쪽.

해부터 불복장이 시작된 것도 기이하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자상승하는 전통을 받드는 자세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묵담성우 대종사의 불복장작법의식은 한국불교태고종의 전계사 도월수진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2012)에는 여타의 전수자들도 묵담성우의 그것을 잇고 있다고 밝혀놓고 있다. 그렇지만 『묵담 대종사, 그 선·교·율』에서는 그 계승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묵담성우 대종사의 불복장의식의 계승을 논하는 데는 그리 어려울 게 없다. 의맥(儀脈)의 전통은 사자상승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가 스승을 모시고 학습해온 이력만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도월수진은 1966년 담양 용화사로 출가하여 해인사 강원과 통도사 선원 등지에서 수학한(1969~1977) 때를<sup>56)</sup> 제외하고는 용화사에서 묵담성우 대종사를 시봉하며 그 율맥과 의맥을 이었다. 현재도 스승이 전해준 대로 전통의 불복장의식을 봉행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조차 무의미하다. 전통의 계승과 증흥은 같은 선상이기 때문이다. 오랜 불복장의 역사에 비해 그 역사가 그리 길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전통의 단절이나 변용의 역사 때문일 수도 있다. 또 그것은 ‘불교 하는’ 목적에 대한 묵담성우의 인식에서 그 답을 얻을 있을 것 같다. 묵담성우는 전통 선종이 불교의 목적이라고 이해하는 ‘직지인심견성성불’에 불교 하는 목적을 두지 않고 ‘전미개오(轉迷開悟) 발고여락(拔苦與樂)’하는 데 두고 있다.<sup>57)</sup> 이 사상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올곧게 계승하는 데도 그대로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묵담성우 대종사는 1954년 이래 국가 개입으로 시작된 불교 내분 시기에도 그의 불교 하는 정신을 올곧게 지켰다. 조계종(1954~1962), 불교조계종(1962~1970), 한국불교태고종(1970~현재)으로 계승된 전통불교 법맥과 의맥의 한 가운데에서 전통의 전수와 계승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묵담 대종사는 1957년 만암종헌을 이어 조계종 2대 종정으로 추대된 이래 불교조

56) 도월수진은 강원과 선원에서 수행할 때도 방학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정혜사 등에서 불복장을 하게 되면 동행하여 습득하였다고 수차 증언하였음(2021.8.10).

57) 이종표, 「묵담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묵담대종사, 그 선·교·율』, 제주: 춘강인쇄사, 2017, 18쪽.

계종과 한국불교 태고종의 종정으로 있으면서 법맥과 전통의례 등을 지켜냈다. 자신의 견성성불보다 중생들의 발고여락의 전통 불교사상이 이었듯이 불교의 전통문화인 불복장의식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도록 터를 다졌다고 생각된다. 불복장의식의 전승이 단순히 하나의 전통의례 전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여의게 하고 즐거움을 주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한국불교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불상 조성은 단순한 예술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붓다,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므로 더없이 귀중하다고 인식하고 한시도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좌라고 할 수 있다. ‘청정 율사 관정아사리 스님들에 의해 비밀리 봉행돼온 불복장작법의식’<sup>58)</sup> 그것의 계승에는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이 잘게 전해지고 있다는 데 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불복장의식의 절차와 특징

그렇다면 묵담성우와 도월수진으로 이어지는 전통불복장의식의 절차는 무엇이고 묵담성우의 불복장의식을 이은 도월수진의 불복장의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불복장의식은 비밀리 설행되어 전해지므로 공개되지 않는다. 불복장의식이 행해지는 도량에는 당사주지스님도 입장하지 못한다는 의식승들의 전언처럼 비공개 영역이다. 그렇지만 현재 불복장의식의 의미나 양식 등을 설명하고 있는 서책이나 영상자료가 널리 공개되고 있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공개되어 있다. 불복장은 세 단계로 이뤄진다. 첫째 불복장에 들어갈 물품을 준비하고, 둘째 그것을 후령통에 안립하며, 셋째 황초복자에 안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조성 절차』(2009)에 실린 ‘수진스님의 불복장 조성 절차의 비교’ 가운데 오방병 소입제색 물

58) ‘청정율사와 비밀스러운 의식’이라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도 있이나 해당 스님들의 인식이 그러하고 그것이 불복장에 대한 인식으로 전승주체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비교 등<sup>59)</sup>과 최인선(2009)<sup>60)</sup>의 논문을 참고하여 목담성우로부터 『조상경』과 『복장진언』 등의 의궤와 행법을 전수받은 대로 설행하는 도월수진의 불복장 조성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복장을 조성하려면 완성된 불상 또는 탕화, 아사리와 오방 송주 법사, 불복장 단, 소입할 물색과 각 종 주, 백개자 씨, 빈 그릇과 맑은 향탕수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먼저 복장을 할 불상을 동쪽으로 향해 안치하고, 오방법사와 송주법사를 선정하는 등의 단중회의를 가지며, 일주문과 사찰마당 법당 앞에서 생반삼분의식을 봉행한다. 이 의식은 1575년 용천사 본 『조상경』에 의거하는데, 도량신과 외부신에게 음식을 베풀어 도량의 외호와 가지를 위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불복장할 여러 물품을 가지하게 된다. 가지는 금강아사리의 관상과 진언염송으로 진행된다. 단(壇)은 두루 모인다는 뜻으로 여러 덕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복장에 들어갈 물목은 오방병에 넣게 되는데, 각 병에 19개씩 모두 95가지이며 병까지 합하면 총 100가지가 된다. 이 물목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각 방위색의 병과 오보, 오곡 정도라고 할 수 있다. 5방 병에 소입되는 도월수진의 소입 물목은 다음과 같다.

- 東: 방경, 청초암륜, 보신자, 화신자, 청초륜자, 청색마노보병, 대맥, 생금, 인삼, 청목향, 대황, 시라청개, 청색번, 청선, 청시화, 향수엽, 거사초, 청개, 청백저
- 南: 삼각경, 홍초람륜, 보신자, 화신자, 홍초륜자, 황색마니보병, 직(피), 진주, 감초, 정향, 옹황, 자개, 홍채번, 홍선, 추수엽, 마하거사, 황개, 홍백저
- 西: 월경, 백초람륜, 보신자, 화신자, 백초륜자, 홍색산호보병, 도(벼), 생은, 곽향, 소황, 백개, 백채번, 백선, 백시화, 야합수엽, 실리거사초, 홍개, 백백저

59) 이국재 편,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조성절차』, 71-120쪽.

60) 최인선, 「조상경과 현대의 불복장-담양 용화사의 수진스님 불복장을 중심으로」, 269-281쪽.

- 北: 반월경, 흑초함륜, 보신자, 화신자, 흑초륜자, 녹색유리보병, 녹두, 유리, 아리, 침향, 자황, 만청개자, 흑채번, 흑선, 흑시화, 오동수엽, 필추거사초, 녹색, 흑백저
- 中: 원경, 황초감륜, 보신자, 화신자, 황초륜자, 백색수정보병, 마자, 호박, 부자, 유향, 우황, 황개, 황채번, 황선, 황시화, 성수엽, 실당거사초, 백개, 황백저

〈표 2〉 조상경과 수진도월의 조성 물목 비교표

구분	五方瓶		五穀		五寶	
	조상경	도월수진	조상경	도월수진	조상경	도월수진
동	청색보병	인초록색보병	大麥	보리	생금	금(1)
남	황색보병	황색보병	稷	피·들깨	진주	진주(3)
서	홍색보병	홍색보병	稻	벼·조	생은	은(1)
북	녹색보병	짙은 청색보병	綠豆	녹두·팥	琉璃	유리(3)
중앙	백색보병	백색보병	麻子	마자·조	琥珀	호박(5)

위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조상경』과 도월수진의 소입 물목의 차이는 약간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도월수진의 소입 물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체여래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는 조선시대 복장에서는 주로 하얀 종이에 붉게 인쇄된 목판본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도월수진은 하얀 종이에 주서(朱書)한 인쇄본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같은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양면원경은 조선시대 복장물에는 대부분 청동으로 둥글게 만들어 후령통 바닥과 위에 놓고 있는데 도월수진은 양면원경을 종이로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

오색선은 오색사를 말하면 동청색, 남홍색, 서백색, 북흑색, 중앙황색의 실인데 도월수진은 흑색대신에 연초록의 실을 사용하고 있다.

후령통을 감싸는 노란보자기 황초복자는 사방 1자 5척의 사각형 크기의 노란색 비단을 사용하는 것은 도월수진도 같다.

원문은 조선시대에는 황초복자보다 작게 만들거나 더 크게 만들고

있지만 도월수진은 황초복자와 동일하게 사각형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원문의 회향문을 보면 도월수진은 전통의 발원공덕회향문(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1)</sup> 전통의 발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월수진이 전통의 의례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리의 경우 수정·유리 등의 보석으로 대용할 수 있는데, 도월수진은 사리함 2개를 만드려 오보병 위에 놓고 각 함의 안에 수정과 옥 7粒씩을 넣는다.

사리함은 둥글며 뚜껑은 팔엽개를 갖춘다고 하였지만 도월수진은 팔엽개 장식이 없는 밋밋한 뚜껑을 사용하고 후령통과 같이 사각형 모양의 사리함을 만든다.

『조상경』의 후령통 형태는 불상은 원형을 불화는 사각형을 하라고 하지만 도월수진은 『복장진언』(1919)의 방원무방(方圓無妨)을 따라 사각형으로 후령통을 만든다.

사방주를 후령통에 쓰라고 하고 있지만 도월수진은 각 방위에 맞는 모습으로 종이에 범자를 써서 붙인다.

팔엽대홍련주의 경우 도월수진은 한 변의 길이 19.3cm 크기의 사각형 노란 종이에 ‘八葉大紅蓮之圖’를 붉게 인쇄하여 사용한다.

천원(天圓)은 도월수진은 ‘准提九字天圓之圖’를 사각형 노란 비단에 붉게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방(地方)의 경우 도월수진은 사각형 노란 종이에 ‘列金剛地方之圖’를 인쇄하여 사용한다.

오륜종자의 경우 도월수진은 사각형의 하얀 종이에 오륜종자도를 만든다. 하얀 종이의 네 모서리에 동방경, 남삼각경, 서원경, 북반월경을 놓고 중앙에 원경을 만들어 붙인다. 『조상경』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오륜종자도가 원형이 아니라 사각형인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보신주(報身呪)는 하얀 생 명주로 하나의 둥근 원을 만들어 방위를

---

61) 최인선, 「조상경과 현대의 불복장·담양 용화사의 수진스님 불복장을 중심으로」, 273쪽.

따라 동글게 다섯 글자를 쓰는데 도월수진은 네모난 하얀 종이에 붉은 글씨로 방위에 따라 범자를 썼다.

화신주(化身呪)는 보신주와 같다.

진심종자(真心種子)의 경우 도월수진은 네모난 하얀 종이에 각 방위에 따라 둥근 윤(輪)을 만들어 붙이고 그 안에 붉은 글씨를 써넣었는데 이것은 『조상경』을 따르고 있다.

오방경(五方鏡)의 경우 조선시대 복장 오방경은 후령통의 네 곳에 놓고 오색사로 묶거나 1경은 후령통 밑에 두기도 한다. 『조상경』에는 아교로 붙여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대개 오색사로 묶었다. 도월수진은 종이로 만든 4방경을 후령통 4면에 붙이고 원경은 후령통 밑에 붙이는데 『조상경』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오방병(五方瓶)은 후령통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월수진은 후령통과 같이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 조선시대 오방병은 동일한데 도월수진은 중앙의 것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불복장에 필요한 제 물품 등이 준비되었으므로 이제 후령통과 황초복자에 안립해야 한다. 먼저 도월수진의 후령통 내에 안립하는 절차 17단계는 다음과 같다. 오륜종자를 놓고, 진심종자·보신주·화신주·준제주·오보병·사리함(사리 7과)·무심공주를 놓는다. 양면원경으로 오보병 입구를 덮고, 오보병 입구를 오색선으로 맨다. 오색사를 합하여 후령통 뚜껑의 구멍으로 뽑고 후령을 오뚝하게 솟게 한 후에 뚜껑을 덮는다. 통바닥에 중방원경을 놓고, 지방으로 통의 겉을 싸는데 이때 방위를 잘 살펴야 한다. 팔엽련으로 천원을 우러르게 하여 아래를 덮고 위를 향하게 한다. 오색사는 연화와 천원의 위를 꿰고, 천원으로 지방의 밖을 안으로 싸는데 천이 지의 밖을 싸도록 한다.<sup>62)</sup> 다음은 황초복자 내에 안립하는 순서이다. 황초복자로 내용물을 겉으로 싼다. 원문을 놓고, 보협주(일체여래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소보협다라니)를 놓는다. 천원과 지방으로 겉을 싼 후령통을 놓고, 황초복자로 겉을 싼다.

62) 이국재 편,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조성절차』, 100-101쪽.

오색사로 구부리는데, 복자의 머리 부분과 오색사를 함하여 나란히 한 후 실을 돌려서 등에 구부려 붙인다. 오색사를 돌려 쌓아 묶는데, 이어서 오색사를 반쯤 돌려 세로로 돌리고 가로로 돌려서 묶는다. 준제주로서 세로로 봉하고,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다라니로서 가로로 봉한다. 남면으로 하고 모 근봉이라고 증명 인을 쓴다. 단상에 봉안하고 송주 법사는 부동존지년 108편을 염송하여 가지하는데, 이상 11단계로 황초 복자에 안립을 마친다.

『조상경』과 도월수진의 복장물 안립 절차 가운데 차이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조상경』에서는 후령통 안에 먼저 오륜종자를 놓고, 그 다음 차례로 진심종자·보신주·화신주·준제주·양면원경을 놓는다고 하고 있지만 도월수진은 조성한 복장물에는 양면원경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리합 위에 오륜종자·진심종자·보신주(입실지도)·화신주(출실지도)·준제주를 차례로 올려 놓았다. 이 점만 다를 뿐 거의 모든 부분이 조상경과 일치하고 있다.<sup>63)</sup>

도월수진은 불복장에 여러 물품을 넣을 때의 몸가짐을 각별히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 “복장물은 100가지로 자세히 날낱이 준비하고 각각 봉투에 오방색에 따라 그 이름을 표시한 다음 상 위에 잘 늘어놓고 안립 절차의 의식순서를 지켜서 법식과 같이 입장하며, 이때 빠지고 섞이고 바뀌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있다. 복장수가 많더라도 100여 가지의 모든 내용물을 수를 세어가면서 방위별로 준비하여, 하나부터 많은 것을 법식대로 하여 적게 되거나 구차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과정별로 주문을 송하거나 물목별로 경을 염할 때도 신중을 기하여 조성한다. 복장물을 조성하거나 안립하는 절차는 매우 다양하여 잘못하면 빠뜨리거나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방위를 잘 살펴 소입(所入)해야 한다.” 도월수진은 해동울맥 11대손으로 묵담성우로부터 불복장과 관련된 의식은 물론 전통불교의식을 전수받아 불복장의식을 봉행하는데,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첫째는 금해관영의

63) 최인선, 「조상경과 현대의 불복장-담양 용화사의 수진스님 불복장을 중심으로」, 280쪽. “양면원경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조사할 당시 상황이라고 보인다.

복장진언의 ‘사방무방’의 가르침에 따라 후령통 밖에 사방주를 직접 쓰지 않고 통 밖 사면에 붙이고 있다. 둘째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오방경, 오보병, 양면원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4)</sup>

#### IV. 결어

“불복장작법”이 2019년 4월 30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되었다. “불복장작법”은 붓다의 유골(사리)을 봉안한 탑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불화 등을 조성한 다음 그 내부에 육신의 오장(五臟)에 대응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는 신물(信物)을 봉안하는 의식을 지칭한다. 이와 같은 의식과정을 통해 불상의 신성성이 완성되어 종교적 가치가 부여되어 신자들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

불복장작법의식은 불상이 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상(像)이나 그림 안에 사리 등을 봉안하는 아이디어는 불상이 유래된 간다라에서 비롯되어 서역을 거쳐 중국에 전해졌다. 간다라 불상에는 정계(頂髻)에 흠을 판 흔적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사리나 사리장치 또는 그 대체물인 보주(寶珠)를 봉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당나라 때에는 불상 내부에 사리가 아닌 여러 공양물이 봉안되었고, 9세기에 이르면 오장(五臟)의 모형을 만들어 납입하였고, 중국의 불교 전래 이전부터 사상(事象)을 통괄하는 오행사상에 입각하여 소우주관인 인체를 존재로 생각하여 인간의 장기인 오장과 그 속에 있다고 상징하는 신(神, 정신)에 관계하는 신체설이다.

국내의 불복장이 확인되는 시기는 13세기 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1274년 이전에 조성된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해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1301년),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복장물(1302년), 일본 관음사 소장 금동보살좌상(1330년),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1346년),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1346년), 화성 봉림사 목

64) 이국재 편,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조성절차』, 127쪽.

조아미타불좌상(1362년),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388년 중수),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389년 개금), 통영 안정사 금동여래좌상(고려후기), 합천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고려후기) 등에서도 복장을 확인할 수 있다.

불복장의식의 관련 의궤는 조선중기 이후 간행되기 시작한 『조상경』에는 네 종류의 경전이 인용되어 있다. 복장물목을 다룬 『묘길상대교왕경』과 납입의식을 다룬 『삼실지단석(三悉地壇釋)』, 『불공견사신변진언경』에는 화상법과 물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1824년 화악 지탁이 유점사에서 편찬한 『조상경』 이전에 간행된 『조상경』은 대략 다음과 같다. 1575년 전남 담양 용천사판 『대장일람경』, 1697년 전남 고흥 팔영산의 능가사판 『관상의궤』, 1720년 평안도 용강화장사판 『화엄조상』, 1746년 경북 상주 김룡사판과 1824년 금강산 유점사 간본 5종과 1864년 필사된 해인사 『성상소화복장의』 및 1869년 필사된 용화사 소장 복장경 등 수본이 존재하고 있다.

해동 율맥의 10대 율사 묵담성우(1896~1981)는 혜은법홍(慧隱法弘, 1915~2003)을 거쳐 손상좌 도월수진(道月守眞, 1948~ )에게 이어지게 함과 동시에 그의 불복장으로 대표되는 의맥(儀脈)을 이어지게 하였다.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2012)에는 도월수진을 비롯하여 태허무관·보륜성오·현함도성·원조경암 등의 다섯 전수자의 사자상승의 특징은 백양사와 묵담성우가 전승의 중심지로 밝히고 있지만, 일부 비태고종 불복장 전수자들이 묵담성우의 불복장 맥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묵담 대종사, 그 선교율』(2017)에서는 부정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다. 이 외에도 불복장의식을 전수받은 니사 2인이 더 활동하고 있다.

묵담성우의 불복장의식의 전통을 잇는 도월수진의 전승 특징은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며 망실이 있을 때 원형대로 도구를 복원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불교 전통의 불복장의식이 묵담성우에서 도월수진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은 도월수진의 담양 용화사에 소장된 복장관련 경서들이 증명해준다.

묵담 대종사는 1957년 만암종헌을 이어 조계종 2대 종정으로 추대된 이래 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 태고종의 종정으로 있으면서 법맥과

전통의례 등을 지켜냈다. 불복장의식의 전승이 하나의 전통의례 전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생의 고통을 여의게 하고 즐거움을 주게 하는 불교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의 불복장은 세 단계로 이뤄진다. 첫째 불복장에 들어갈 물품을 준비하고, 둘째 그것을 후령통에 안립하며, 셋째 황초폭자에 안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조성 절차』(2009)에 실린 ‘수진스님의 불복장 조성 절차의 비교’ 가운데 오방병 소입제색 물 비교 등을 참고해 보면 묵담성우로부터 『조상경』과 『복장진언』 등의 의궤와 행법을 전수받아 설명하는 도월수진의 불복장 조성절차 등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금해관영의 복장진언의 ‘사방무방’의 가르침에 따라 후령통 밖에 사방주를 직접 쓰지 않고 통 밖 사면에 붙이고 있다. 둘째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오방경, 오보병, 양면원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 전통의 불복장의식이 올곧게 전승된 데에는 한국불교태고종의 정신적 지주인 묵담 대종사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거기에는 불상조성을 통해 받고여락하려는 불교 목적의 성취라는 정신이 담겨 있으며, 그것이 사자상승으로 전수되고 계승되어 바르게 실천될 때 불복장의식의 진정한 가치는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I. 단행본

- 가산지관, 『한국불교계율전통』, 가산불교문화원, 2005.
- 경원 편저, 『불복장의 비밀』, 민족사, 2018.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문화부·불교문화재연구소,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 조계종출판사, 2012.
- 대한불교 전통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보존회·불교문화재연구소,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디자인 멋, 2014.
- 묵담대종사문도회, 『묵담 대종사, 그 신·교·율』, 제주: 춘강인쇄사, 2017.
- 묵담대종사문집간행위원회, 『묵담대종사문집』, 민족사, 1999.
- 불교문화연구원, 『韓國佛敎思想史概論』, 동국대학교출판부, 1963.
- 심상현, 『불교의식각론』Ⅱ, 한국불교출판부, 2000.
- 이국재 편,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조성절차』, 사단법인 한국불교전통불복장의식보존회, 2009.
- 태경 역, 『造像經-불복장의 절차와 그 속에 담긴 사상』, 운주사, 2006.
- 한국불교전통불복장의식보존회, 『묵담 대종사와 그 후계자 도월수진』, 제주: 춘강인쇄사, 2019.

### II. 논문

- 강인구, 「瑞山 文殊寺 金銅如來坐像腹藏遺物」, 『미술자료』 18, 국립중앙박물관, 1975.
- 남권희, 『조상경』, 대한불교 전통 불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 2014.
- 남권희, 「조상경 판본의 서지적 연구」,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대한불교 전통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보존회·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 문명대, 「불복장의 기원과 한국 불복장의 전개」, 『열반, 궁극의 행복』, 불교중앙박물관, 2014.
- 박경원 외, 「永泰二年銘蠟石製壺」, 『연보』 6, 부산시립박물관, 1983.
- 이선용, 「韓國 佛敎腹藏의 構成과 特性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승혜, 「중국 불상의 성물 봉안: 쟁점과 과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의식

- 및 점안의식보존회·불교문화재연구소,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2014.
- 이승혜, 「불교 조상사적(造像史的) 맥락에서 본 복장(腹藏)」, 『남도문화연구』 제38집,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9.
- 이용윤, 「불상봉안의식의 精髓, 腹藏」,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문화부·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 이종수, 「담양 용화사 도월수진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 『묵담대종사와 그 후계자 도월수진』,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의식 보존회, 2019.
- 이종수, 「담양 용화사 도월수진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 『남도문화연구』 제38집,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9.
- 이주형, 「간다라 불상과舍利 奉安」, 『중앙아시아연구』, 중앙아시아학회, 2004.
- 이중표, 「묵담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묵담대종사, 그 선·교·율』, 제주: 춘강인쇄사, 2017.
- 정은우, 「우리나라 복장물의 형성과 특징」, 대한불교 전통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보존회·불교문화재연구소,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디자인 멋, 2014.
- 최인선, 「조상경과 현대의 불복장-담양 용화사의 수진스님 불복장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제31호, 한국문화사학회, 2009.
- 태경, 「묵담 대종사와 불복장의식」, 『묵담 대종사, 그 선·교·율』, 묵담대종사문도회, 2017.
- 허홍식, 「中世 曹溪宗의 起源과 法統」, 『조계종사연구 논문집』, 중도, 2013.

# The development of the ritual of keeping sacred relics in the abdominal cavity of the Buddha statue and the value of its succession

- Focusing on its succession from Mukdam to Sujin -

Lee, Seong-Woon

| Professor at Dongbang Culture Univ.

The rule of practice for keeping sacred relics in the abdominal cavity of the Buddha statue is the ritual in which a sacred object with religious significance in equivalent to the five viscera is enshrined in the Buddha statues and the Buddhist paintings like śarīra in a pagoda.

The idea of enshrining śarīra in the statues originated from the Western Gandhara. Since the 3rd and 4th centuries, śarīra was enshrined in the head of the Buddha statue in the central Asia. It has been developed by making the shape of five viscera and six entrails in the Buddhist statues and putting sacred objects in them in China. In Korean Buddhism similar figures in the Buddhist statues were seen in the 8th century and they have been found in Amitābha Buddha statue of Gaeunsa Temple in Seoul since the 13th century.

The ritual of keeping sacred relics in the abdominal cavity of the Buddha statue may have existed prior to the 14th century, when it is commonly known that it was standardized and the scriptures cited in “*Josanggyeong* (造像經, making a statue Sūtra)” was compiled. However existing scriptures

related to *Josanggyeong* date from the late 16th century onwards.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the tradition of the ritual of keeping sacred relics in the abdominal cavity of the Buddha statue has the lineage of Hwadam Beoplin → Geumhae kwanyeong → Mukdam Seongwoo → Dowol Sujin. Mukdam Seongwoo succeeded to its heritage and its related materials, which were transferred to the Yonghwasa Temple in Damyang, and Dowol Sujin inherited its tradition.

It contains the spirit of achieving the purpose of Buddhism through the creation of Buddha statues: deliverance of all living beings from suffering and leading them to happiness. The ritual of keeping sacred relics in the Buddha statue should be transferred and taken over from the teachers to the disciples, and practiced properly, which shows its true value.

Key words: the rule of practice for keeping sacred relics in the abdominal cavity of the Buddha statue, the ritual of keeping sacred relics in the abdominal cavity of the Buddha statue, the idea that the internal organ has a soul, *asanggyeong* (造像經, making a statue Sūtra), Mukdam Seongwoo, Geumhae kwanyeong, Dowol Sujin

▣ 이 논문은 2021년 07월 27일 투고되고, 2021년 07월 28일 심사 완료되어 2021년 08월 07일 게재 확정됨.